

사랑 값

어떤 상품에 값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희소성입니다. 쉽게 구할 수 없는 물건일수록 값이 높아집니다. 보석이 값비싼 이유는 보석 자체의 특징 때문이기도 하지만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값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같은 사람에게 보석은 별 매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보석에 대한 끌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 혹은 어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희소성은 객관적인 기준이지만, 사랑은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혹은 누구인가를 사랑하면 그 사물 혹은 사람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제 기도실 벽에 걸려 있는 나무 십자가를 팔려고 내놓으면 아무도 사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거금을 준다 해도 내주고 싶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 십자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자란 나무로 깎아 만든 특별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귀한 이유는 그것에 대한 나의 애정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에 저를 아는 사람들도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기독교 사상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그의 책 <사랑과 정의>(Justice in Love)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을 분석하면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창조주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귀하고 존엄한 이유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사랑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존엄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유발시킬만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는 사랑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값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 쳤던 모든 노력을 내려 놓고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주던 모든 자존심의 근거를 내려 놓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한 가지 사실 위에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로 하나님"과 깊은 사귄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에 눈 뜨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절대적 가치에 눈 뜨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7월 8일 주일설교

“은혜의 원리를 따라”(According to the Grace-Principle)


-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75장(통47)
-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로마서 12장 전체를 돌아가며 읽습니다. 은혜의 원리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 말씀나눔**
 -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 2.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당신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세 가지(은혜에 눈 뜨는 것,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것, 은혜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 각각에 대해 당신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고 나누어 주십시오.
 - 3.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로 지배하는 것은 생존의 원리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원리입니까?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4. 당신의 가정과 교회에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도**
 - 1. 은혜에 눈 뜨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 2. 생존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증보기도**
 - 1.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으로 증보하십시오.
 - 2. 지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의 소식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통408)
-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매일묵상 안내
www.koinonia2018.com



수요 예배

오후 8시 / 본당
인도: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유성현 목사
말씀 로마서 강해 김영봉 목사
찬양과 기도 다같이

사역자 연락처

직책	이름	전화	이메일
담임목사	김영봉	703-850-9447	bong320@gmail.com
부목사	유성현	805-843-9167	karis10120826@gmail.com
영어권 담당목사	Danny Chung 대니정	213-210-4057	dannychung50@gmail.com
어린이 담당 디렉터	Alex Kim 알렉스킴	571-201-0701	munkyong@hotmail.com
English Worship Pastor	HK Kim 김형균	703-346-0001	hkkim122@gmail.com
사무행정	윤문경	703-944-7827	dalpool@hotmail.com

- '전교인 신약일독' 이번 주 진도는 **로마서 13-16장 및 시편 34-35편**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신약일독 진도에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www.koinonia2018.com에 접속하시면 매일 읽을 본문에 대한 간략한 묵상 가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예배에서는 그동안 새교우반을 이수하신 두 가정을 위한 새교우 환영예식을 행합니다. 교우들께서는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교우로 환영받는 이들: 정영준/양영자, 김유해/전정희
 -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전교우 수양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3시 40분에 수양회 평가회가 213-215호실에서 모입니다. 수양회 준비위원들께서는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 단기 선교단이 지난 목요일에 현지에 도착하여 수양회와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단기선교 참가자:
성인: 대니정(인솔자), 기수양, 김상백, 김육정
학생: Grace Chon, Yeji Jang, Jamie Jeong, Ellie Kim, Hyunwoo Kim, Zack Nam, Judy Yoo
 - 내일(7월 9일) 오후 7시 30분에 213-215호실에서 정기 임원회로 모입니다. 임원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7월 15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CUMC와 함께 드립니다. 일년에 한 번 드리는 두 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중 언어로 진행되고, 온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 CUMC와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주관하는 여름성경학교(VBS)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교회에서는 교회 장지 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Fairfax Memorial Garden에서 묘지 12개 이상을 구입하면 Group Discou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 의사가 있는 분들은 장례사역팀장 전상중 교우(703-470-70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21일 오전 8시부터 213-215호실에서 전체 속장 모임이 있습니다. 속장들께서는 기억하시고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7월 15일)은 도서부가 클로즈합니다.
- ❖ 담임목사 동정: 7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기도원에 다녀 옵니다.
 - ❖ 새가족되심을 환영합니다.
김영선 Centreville VA
김병구 Centreville VA

- 교우 모두가 '삼중 사림'(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쿠바(전구 선교사), 아이티(김은숙 교우)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 7월 5일부터 14일까지 있을 멕시코 단기 선교단을 위해
- CUMC와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주관하는 여름성경학교(VBS)를 위해

주일예배

- **한어 성인예배(KS)**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 / 208호
- **Youth & ES**
오후 2시 /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8시 / 본당

새벽기도회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7월 신약일독진도 (www.koinonia2018.com에서 묵상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9일(월)	10일(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4일(토)
로마서 13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5장	로마서 16장	시편 34편	시편 35편

주일 섬김과 봉사

- 예배: 공효선/김인애/김정규
주준호/주규리/이성래
- 바나바: 조관식/오한나/김희옥
이수진/오은미
- 멀티: 이백호/윤석호/김애린/
정도균/이유경/이애나
- 주차: 장호범/박윤빈/김성식
- 도서: 허옥신/김용규
- 성찬식: 류수연

제자반

- **4050 남성제자반**(인도: 김영봉)
화요일 오후 7:30-9:00/ 방학
- **여성성경필사나눔반**(인도: 도현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방학
- **4주 제자학교**
토요일/ 9월 개강 예정
- **에바다 성경모임**(인도: 기수양)
토요일 오후 6시-9시/ 217호

7월 봉사 안내

- 안내와헌금: 오늘(7/8): 김인애/김정규
다음주(7/15): 김인애/오한나
- 7월 15일: 회중기도: EM
성경봉독: EM
- 주일 친교: 오늘(7/8): 우슬초속
다음주(7/15): 마중물속

(7월1일)

수양회 주일예배	121	주일학교	
본당 연합예배예배	90	주일헌금	\$415
		주정/월정	\$2,735
		십일조	\$3,290
주일예배 출석 합계	211	선교헌금	\$3,900
		감사헌금	\$440
수요예배(7/4)	29	사랑헌금/기타	\$20
주간예배 출석 합계:	240	합계:	\$10,800

2018년 7월 8일 | 성령강림후 일곱 번째 주일

		본당 / 2:00 pm	
사회: 유성현 목사			피아노: 이애령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점화자
● 경배 찬송 Hymn of Invocation	“하늘에 계신” 635장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다같이
● 예배의 부르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 찬송 Hymn of Praise	“주여 우리 무리를” 75장(통47) God, be merciful to us		다같이
● 신앙 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회신경		다같이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한익홍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12장 9-21절 Romans 12:9-21		이수진
찬양 Anthem	주여 감사합니다		성가대
설교 Sermon	“은혜의 원리를 따라” According to the Grace-Principle		김영봉 목사
응답의 기도 Prayer of Reflection			다같이
● 송영과 봉헌 Doxology & Offering	“이 천지간 만물들아” 5장(통3)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다같이
목회 기도 Pastoral Prayer			김영봉 목사
새교우 환영예식			말은이
● 결단의 찬양 Hymn of Commitment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5장(통405) The Mercy of God is an ocean..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영봉 목사
인사와 광고 Greeting & Announcements			김영봉 목사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Tithe into the trays in the chapel.